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 544—0610
544—0611

月刊/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 록 일 :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6百13億9千3百萬원調整

'90年度 漁港건설豫算

豫算당국서 3百億원이나 削減

수산청은 90년도 어항건설 예산으로 6백 13억 9천 3백만원을 최종 계상, 이를 국회에 심의 요청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조정된 90년도 어항건설예산은 사업비 6백 7억 5천 8백만원과 기본적 경비 6억 3천 5백만원으로, 올해보다 69억 7천 7백만원이 늘었다. (12.8%)

國會의 增額期待

基本施設91年完工계획蹉跌우려

2種港完工率저조擴大투자時急

수산청이 정부안으로 확정한 명년도 어항건설예산중 5백 74억 9천 3백만원, 2종항에 투자액은 1·3종항에 39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3·4%(67억 9천 2백만원), 5·0%(1억 8천 5백만원)가 증가했다.

수산청은 어항시설미비로 지난 81년이후 연평균 1천 5백여척의 어선피해를 감안, 어선의 안전수용과 출어보급시설을 확보하고자 당초 9백 48억 2천 6백만원을 명년도 어항건설 투자액으로 예산당국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무려 3백 34억 3천 3백만원이나 격감, 수산청은 1·3종항의 기본시설을 91년까지 완공한다는 정부공약과 차질을 빚고, 특히 2종항의 경우 지방재정이 빈약한데 따라 그동안 완공율이 극히 저조하여 확대투자가 시급하여 국회에 당초 요구액이 계상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수산청이 예산당국과 조정한 명년도 어항건설예산중 투자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단위 : 백만원〉

	'89예산 (A)	'90요구	'90조정 (B)	증△감 (B−A)
계	54,416 (4,000)	94,826	61,393 (4,000)	6,977(12.8%)
1·3종어항	50,701 (4,000)	84,840	57,493 (4,000)	6,792(13.4%)
2 종어항	3,715	9,986	3,900	185(5.0%)

「膨張豫算」속 유독踏步

明白해진 漁港輕視

지난해에는 88서울올림픽 등 범국가적인 행사가 많았지만 한늘이 도운 탓인지 근년에 보기드물게 거의 천재지변이 없이 수월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올해는 마치 이것을 벌충하기 위한 듯 50년대 대홍수가 삼남(三南)지방을 할퀴고 지나갔다.

어항부문쪽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종 굵직한 사건·사고소식에 가려져 거의 기억하는 사람조차 많지 않겠지만 지난 8월 30일 새벽과 9월 17일 오후에 전북 군산, 옥구, 충남 보령, 태안 등 서해중부해안지방에 순간 최대풍속 25㎧의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해일이 발생하여 약 6백억원(어민추장)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피해를 보는 어항인들의 입장은 이를 모두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치부해버리기엔 너무도 아쉬움이 많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못막은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수산청이 각종 통계자료와 현황, 어민들의 동정 등을 상세히 파악, 그렇게도 애쓰고 공들여 제출한 90년도 수산부문예산 중 어항건설관련예산 9백 48억원을 경제기획원에서 마치 무우 자르듯 35%가 넘는 3백 34억원씩이나 뚝 잘라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착잡하고 허탈한 심정을 어쩔 수가 없었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비록 많은 액수를 삭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 예산보다는 약 13%가량이 많은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각종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이는 오히려 어항예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원래 경제기획원이란 곳이 나라 안팎의 살림을 두루 책임지고 떠맡는 곳이기에 각 산업부문별·지역간·계층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애쓰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어항예산을 난도질(?)하는 배경이 만에 하나라도 수산청이 부(部)급 행정기관이 못되서라든지, 아니면 어민들이 목청을 높이지 않은 탓에 있다면 이는 명백한 수산업 경시풍조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焦点

충남海溢에 6百億날려

미리「호미」로 막아야

基本施設完工公約무산

물론 이 예산은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과정에서 다소 참작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자의 수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매년 공허한 예산논평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란 점이다.

단두차례의 해일로 인한 피해액이 줄잡아 6백억원인데 어항부문 연간 예산이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몇차례 부언하는 것이지만 90년도에 어항부문 예산이 약 1천억원이 책정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어마어마한 어항건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업인 어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즉 기본시설의 완공에 거의 전액이 투입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더욱이 어항기본시설 완공은 지난해 노태우대통령이 충남 보령군 무창포어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민들에게 확언한 대국민 공약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91년까지 해마다 적어도 1천억원 이상은 투자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어떠해질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해양수산부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괴깃을 들고 시위라도 해봐야 겠다는 자조적 이야기와, 이러다간 3류 수산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우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린다는 요즘이다.

漁港法改正案 試案마련

意見수렴나서

수산청은 어항법시안을 마련, 지난 9월 11일 이를 시·도와 관련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수산청은 어항법이 제정된 지난 69년이후 변화된 어업여건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어항을 어촌발전을 위한 정주생활권으로 개발하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어항법 개정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한국어항협회에서 주관한 개정시안에 대한 유관기관 및 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시안을 가다듬기도 했다.

수산청이 마련한 어항법개정시안에 따르면 어항개발을 원하는 민간인은 수산청의 승인을 받아 민자에 의한 어항개발을 할 수 있고 어항의 기능시설가운데 ▲수산물 축양시설 ▲수산종묘 생산시설 ▲양식용사료보관 호제시설 ▲양식용작업시설 등을 추가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송시설도 주차장과 헬리포트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수산청은 또 후생복지시설 조항을 신설, 낚시터 유어선 모터보트 등 레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어항을 여객선이나 화물선 등 어선이외의 선박도 이용가능토록 했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어항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해 ▲어항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유독물이나 동물의 신체를 버리는 행위 ▲어항시설을 무단매립 등을 하는 행위 ▲다량의 토석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어항에서의 이 시안은 이밖에 벌칙조항을 크게 강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漁港法改正좌담회

2面에발췌記事「漁港」誌에全文

港種조정에 着手 收容能力을 제고

수산청은 어선수용능력을 제고하는 등 방안의 하나로 어항의 항종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無人燈臺설치키로 新安郡삼봉리등에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은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 항로가 비좁고 암초가 많은 신안군 임자면 삼봉리를 비롯해 군초면 우이도, 흑산면 호장도, 완도군 불도 그리고 황제 등 5개소에 무인등대의 설치를 오는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水災의연금 寄託 漁港協、수산청에

한국어항협회는 지난달 30일, 서해안 일대에서 해일을 동반한 폭풍의 강타로 많은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를 당한 충남·전남·전북지방 어민들의 수해복구비로 써주도록 수재의연금을 수산청에 기탁했다.

颱風피해복구 全南·慶南등 國庫서 23億원

수산청은 지난 7월 25일에서 29일 사이 전남과 경남 등 8개 시·도에 내습한 태풍과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등과 절충, 복구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수산청이 마련한 7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계획에 따르면 어선 53척, 어항 13개소, 증양식 13건, 어망 37건 등의 피해액 37억 4천 3백만원을 국고에서 23억 8천 5백만원, 지방비 1억 9천 2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 6천 9백만원의 융자와 자담 9억 9천 7백만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국고에서 보상할 23억 8천 5백만원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하는 한편 융자액인 1억 6천 9백만원을 재무부소관 재해대책비중 수산피해복구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核폐기와 전혀無關

사동항建設

수산청은 제1종항인 사동항건설이 핵폐기물 처리장 시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경북 울진 반핵운동청년협의회 회장인 남상민씨의 핵폐기물 처리장 시설과 사동항 건설과의 관련여부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사동항 건설은 수산청의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9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丑山港 地質조사「東原」에 用役

8月末완료

수산청은 제1종항인 축산항 지질조사 사업을 주식회사 동원토질(대표: 장인섭)에 총 9백 29만원에 용역의뢰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동원토질은 지난 7월 1일 축산항 지질조사 사업에 착수, 총 9백 29만원을 투입하여 한달동안 축산항 지질조사에 대한 시추작업 및 토질분석 등을 마치고 지난 8월 31일 수산청에 과업완료를 보고했다.

"漁港관리專担할 機構설치 反映해야 民資誘致 어항開發 적극誘導하도록"

漁港法改正 좌담회서 促求

漁港投資확대 制度的장치도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9월 8일 오후 2시 수산청을 비롯하여 연구기관과 시공업체 그리고 어항협회 등 관련기관 단체들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항법개정시안 좌담회를 가졌다.

협회 회의실에서 손정식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홍제 수산청 어항과장은 수산청이 작성한 어항법 개정시안은 ▲어항기능다양화에 대비한 각종 시설 근거를 마련하고 어항관리시설의 효율화와 어항 정화시설 등을 신설 구체화 하였으며 ▲민자유치에 의한 어항시설 확대방안 법적근거, ▲어항관리에 있어 벌칙규정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날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어항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어항예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민자유치 방안에 의한 어항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어항을 시설한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권한을 위임, 특수법인화 하여 관리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신영태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어항은 기능시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와 유지보수에 주력하고 복합적인 배후지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법인체를 설립하여 각각 고유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관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사회를 맡은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을 비롯하여 ▲조홍제 수산청 어항과장 ▲신영태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구철서 삼건사 전무 ▲김학영 신풍건설 전무 ▲김익수 수산청 사무관 그리고 협회측에서 김영환 이사가 참석했다。

座談 요지

試案 33條附則4項으로 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좌담회 발언요지

▲손정식(한국어항협회 회장): 바쁘신 가운데도 어항법개정시안 좌담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조홍제 수산청 어항과장을 비롯해서 신영태 농경연 수산부 책임연구원, 시공업체, 그리고 조합대표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홍제(수산청 어항과장): 현행어항법은 1969년 5월 19일 제정 공포되어 어언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현실에 맞도록 어항법개정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음으로 어항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어항법은 제30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시안에서는 제33조 부칙 4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어항법개정시안에 있어 개정한 주요골자는 첫째 어항기능다양화에 대비한 각종시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항관리시설의 효율화, 어항정화시설 등을 신설 구체화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어항법에서는 민자유치에 의한 어항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시안에서는 민자유치에 의한 어항시설 확대방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째, 어항관리에 있어 벌칙규정을 강화, 명실공히 어항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항관리 등에 역점을 두어 개정하였습니다.

▲손회장: 현행어항법과 어항법개정시안을 비교검토하여 개정안에 있어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각 조문별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영(신풍건설 전무이사): 구법과 신법에 있어 달라진 점이 많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어항법개정시안은 시행령에 있던 조문을 모법에 명시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수산청 시설과 사무관): 이번 어항법개정시안을 볼 것 같으면 관리측면에 있어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제5항에 기타 어항의 보존 또는 그 이용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태영(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직의 구조 내지 인건비 등 운영부제자체는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측면에서도 농업관개수로 등 농업개량을 위해 수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항 또한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단체가 관리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이사: 현행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제1총 및 제3총어항은 수산청장이, 제2총어항은 직할시장·도지사가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위임규정에는 「시장·도지사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항관리는 관이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청의 예를 들면 콘테이너부두 등은 공단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콘테이너·부두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구전부: 민자유치에 의한 불모지 연근해 어장을 개발할 경우 사용권을 부여한다면 불모지 연근해에 어촌활력을 투하 어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참여자들이 많을 것으로 본데요.

官관리 問題 法人에 代行

委任위한 根據마련토록

▲조과장: 민자유치로 개발한 항에 대해서는 항내의 일정구역인 접안시설이라든지 물양장 등 사용권한을 주며,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국유의 이익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과장: 현행 어항법에서는 그것을 사유화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회장: 제31조 권한의 위임 규정에서 「수산청은 이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터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연구원: 어항의 기능시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와 유지보수 등 복합적인 배후지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법인체를 설립하여 각각 고유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조과장: 어항시설의 배후지 시설 등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측면에서도 관계부처와 상충됨이 없도록 합의가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연구원: 공간배치의 문제는 하드웨어 문제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운영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손회장: 그럼, 대체로 어항법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된 것 같군요.

▲조과장: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손정식 한국어항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항법 개정에 있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회장: 오늘날의 어항개념은 기능과 역할측면에서 많은 변모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어항을 개발 촉진시키는 측면도 중요한 반면 관리측면 또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항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어항예산을 많이 늘려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에 의한 어항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어항시설한 것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권한을 위임 관리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특수법인화 하여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항법에 설립근거를 마련할 경우 법적지위에 의한 권위향상과 조직확대 등 어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점차 연구 보완되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어항발전을 위해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종종 만들어 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간 어항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動靜

▲이동배 수산청장은 지난 9월 8일 지난달 30일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해일을 동반한 폭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해 실의에 차 있는 충남·전남·전북 지역의 어민들을 위로키 위해 수산청 및 산하기관·단체에서 마련한 위로금 2백50만원중 충남·전북에 각각 1백만원씩, 전남에 50만원을 청장친서와 함께 각 도에 전달했다。

▲이동배 수산청장은 지난 9월 4일 상오 바누아투의 J·HOPA농수산장관 일행 4명을 예방받고 한·바누아투 양국간의 어업협력방안에 관해서 협의했다。

▲박희재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9월 7일 하오 일본 자민당 수산정책서위원회의 곤도위원장 및 자민당 중의원 농림수산위원 마스다씨 일행의 예방을 받고 한·일 공동어로구역에서의 조업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박회장은 지난 9월 1일과 2일 해일피해복구 독려차 재해어민을 위로하기 위해 대천·장항·군산지역을 출장하고 4일에는 연수원에서 신임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출장

▲고세진의원(주식회사 서해회장)은 서독의 프리드리시나우만 재단 초청으로 지난 9월 2일 출국, 10일 귀국했다。

고세진의원은 서독방문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 지방자치제와 도시계획 등을 살피고 관계기관도 방문했다。

▲이금우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은 지난 8월 26일 일본거래선과의 업무협의차 출국했다。

개설

▲수협중앙회는 8월 25일 경기도 부천시 남부 실곡 1동 667번지에 부천지점(지점장: 白南頊)을 개설했다。(032)657-0016~8。

▲근해안강망수협은 지난 8월 30일, 인천직할시 북구 일신동 107에 상호금융점포인 일신지소(지소장: 羅世明)를 개설했다。(032)529-9743~4。

또 지난 9월 8일에는 광주직할시 북구 우산동 359의 1에 서방지소(지소장: 金學水)를 개설했다。(062)526-8201~4。

한편 오는 10월 12일에는 전남 여수시 교동 470에 교동지소를 개점할 계획이다。

▲인천시수협은 지난 9월 7일 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 931-1의 59에 계산지소를 개설한데 이어 18일에는 인천직할시 북구 산곡동 87의 803에 산곡지소를 개설했다。

결혼

▲구철서씨(주식회사 삼건사 전무이사)의 장녀 지연양이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목화예식장 3층(건설)에서 화촉을 밝힌다。

▲이지연씨(수산청 어정국장)의 장녀 정윤양이 지난 9월 18일 오후 1시 뉴코아 예식장(장미실)에서 화촉을 밝혔다。

회비

■단 체: 분담금 및 연회비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김홍윤 조합장)

▲상호산업주식회사(윤은기 사장)

▲합자회사 대한토건사(전기섭 사장)

■개 인: 연회비

▲류철호씨(부산수대 교수)

▲문용근씨(수산청 어항과)

▲배길룡씨(수산청 어항과)

회원가입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김홍윤 조합장)

설치

▲한국어항협회는 행정업무 효율화의 일환으로 팩시밀리를 설치했다。FAX. 544-0611。

내방

▲임승연씨(주식회사 한국항공 상임감사)

▲길홍배씨(대한통운주식회사 상임감사)

▲박성태씨(성보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장)

▲전정진씨(수협중앙회 홍보실 차장)

▲조창구씨(삼부토건 주식회사 회장)

▲장경남씨(덕우수산 주식회사 사장)

▲김일재씨(주식회사 범신기획 회장)

▲김길연씨(상호산업 주식회사 상무이사)

▲송형주씨(외환은행 대전지점장)

▲김영석씨(한국방송공사)

▲이종섭씨(수협청량리 공판장)

▲황재수씨(한국수산신보사 사장)

▲이문우씨(어민신문 차장)

漁港표어

위임규정에는 「시장·도지사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항관리는 관이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청의 예를 들면 콘테이너부두 등은 공단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콘테이너·부두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구전부: 민자유치에 의한 불모지 연근해 어장을 개발할 경우 사용권을 부여한다면 불모지 연근해에 어촌활력을 투하 어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참여자들이 많을 것으로 본데요.

忠南등3個市·道颱風피해 54億3千4百萬원최종集計

漁港 12곳에서 13億2千萬원 復舊서두르기로

수산청은 지난 8월하순 충남 등 3개 시·도에 몰아닥친 폭풍피해액으로 모두 54억 3천 4백만원을 최종 집계했다.

지난 8월 29일에서 30일 사이 충남과 전북·전남 등에 내습한 폭풍으로 어선 1천84척(전파 6백35척, 반파 4백49척) 24억 3천8백만원, 어항 12개소 1·3종 3곳, 2종 9곳) 13억 2천 4백만원, 증양식 7백50건(해태밤, 자재, 가두리) 7억3천9백만원, 어망 3백12건(정치망 등) 8억2천4백만원, 기타 6건(수산물건조장, 창고 등) 1억9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수산청은 밝혔다.

수산청은 폭풍피해가 발생되자 지난 8월 31일에서 9월 1일사이 이동배청장이 피해지역을 답사한데 이어 9월 2일에서 8일사이 본청직원 5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와 협의 했다.

따라 피해복구를 서두르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조성사업에는 올해보다 8·9%, 9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1백17억2천8백만원이 책정됐으며 시험연구 및 어촌지도사업에 올해보다 12·5%, 10억6천4백만원이 늘어난 96억2백만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안전조업지도에 올해보다 63·6%, 42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1백8억4천2백만원을 책정했으며 어로시설사업에 8·9%, 5억1천8백만원이 늘어난 63억3천9백만원을 배정, 또 양식어장개발사업에 4%, 1억8천9백만원이 늘어난 49억2천1백만원이 배정됐으며 수산물유통시설사업에 11억4천4백만원이 책정됐다.

90年度水産部門예산 1千8百億원規模

내년도 수산부문예산이 1천7백99억7천9백만원으로 올해보다 13·6%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수산부문예산을 올해보다 2백15억 1천4백만원이 늘어난 1천7백99억7천9백만원으로 책정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사업비의 경우 올해보다 12·7%, 1백81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기본적 경비는 21·3%, 33억6천9백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어업별로는 연근해어업이 1천4백99억8천9백만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83·3%를 차지, 올해보다 1백92억 2천5백만원가량이 증액됐으며 내수면어업도 전체예산의 0·6%인 11억6백만원을 배정했다.

반면 원양어업은 전체예산의 1억2천4백만원을 책정, 올해보다 3억9천9백만원이 모자라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어항건설이 전체사업비의 34·1%인 6백13억9천3백만원을 차지, 지난해보다 12·8%, 69억7천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수산자금융급 및 부채경감지원사업에 올해보다 9·8%, 39억4천4백만원이 늘어난 4백42억7백만원을 책정했다.

漁港畵報제작契約

2次로 全南9·濟州4個港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9월 12일, 제2차 어항화보제작을 수산청과 계약했다.

두번째로 발간할 어항화보는 전남 9개항과 제주 4개항 등 13개항을 수록하고, 모두 2천4백77만원으로 제작된다.

韓國漁港協會마크 制定

結束·共同權益증진表象

한국어항협회는 회원들의 결속과 공동이익 증진을 표상하고 어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호벽으로써 이미지를 표현할 협회 마크를 확정했다. △도안참조▽

한국어항협회는 설립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협회를 상징하는 마크제작에 앞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안전문업체에 의뢰, 5개 시안을 접수했으며 그동안 이사회에서 면결의로 부의, 이사 18명 중 13명의 동의로 최종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확정된 한국어항협회 마크는 삼각형의 고형적 형태에서 오는 안전·안정·웅지의 느낌을 어항협회에 부각시키고자 TTP를 변형 디자인 한 것으로, 이 디자인은 어항협회 회원들 간의 강한 결속력과 응집력을 나타내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오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상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성으로 가꾼어항 복지어촌 기틀된다

協會分担金全納

三建·金光·南和

주식회사 삼건사(정덕용 사장)와 금광기업 주식회사(고제철 사장), 남화토건 주식회사(최상옥 사장)는 어항협회 금년도 분담금 전액을 납부했다.

第2回 漁港사진公募

10月末까지 韓國漁港協會로 提出

21世紀 先進漁港으로의 발돋움

21세기를 향한 선진어항으로의 발돋움을 촉구하고 어항개발을 촉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국어항협회에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항사진을 공모합니다.

본회 회원과 어항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어항사진공모에는 수산과 관련이 있는 흑백이나 칼라 4×5이상의 규격의 사진을 출품하면 됩니다.

출품을 원하시는 분은 사진 뒷면에 작품명·직장·성명을 게재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한국어항협회로 제출하시길 바라며, 작품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격: 본회 회원 및 어항관련 종사자

■출품대상: 수산과 관련이 있는 모든

■종류 및 규격: 흑백및 칼라 4×5(이상)

■출품점수: 제한없음(뒷면에, 작품명, 직장, 주소, 성명)

■출품처: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출품기한: 89년 6월~89년 10월 31일까지

■작품심사 및 입장작품 발표

①심사: 심사위원은 사계권위자로 구성 엄격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선행

②발표: 12월 어항소식 및 어항지 겨울호에 발표

■상패 및 상금

금상: 20만원

은상: 15만원

동상: 10만원

■시상: 89년 12월중(별도개별통지)

■기타: 출품작품은 본회 귀속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사단법인한국어항협회

東原土質 史上最高額受注

仁川市발주 매립設計用役

주식회사 동원토질(대표: 장인섭)은 우리나라 단일용사로써는 사상 최고금액인 6억6천만원에 인천직할시 공영사업개발단으로부터 송도공유수면매립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주식회사 동원토질은 송도공유수면매립사업 설계용역에 있어 토질조사 및 측량부분에 참여케 되며, 토질조사용역비 4억1천만원을 투입, 보링 2백개소와 실내시험 등을 포함한 토질조사를 하는 한편 측량용역비 2억5천만원을 투입, 삼각측량과 수심측량 등 총 6억6천만원을 투입 조사 실시한다.

이번에 인천직할시 공영사업개발단이 시행하는 송도공유수면매립사업 설계용역은 (주)대영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주)동화종합기술공사 그리고 (주)한국종합기술공사 등이 공동 수주했다.

바·야·흐·로·수·산·물·식·사·혁·명·이·진·행·되·고·있·습·니·다.

수산물은 맛도1등, 영양도1등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신비로운 바다의 생태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신비가 간직된 이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은 양질의 단백질과 고급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신비로운 장수건강식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웃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무공해 건강식품인 수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육류중심의 잘못된 식사때문이란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정어리, 고등어 등을

기름에 튀긴 「생선칩」 [illegible] 「샐러드」 전문점이 큰 인기를 모[illegible]
생선요리를 메뉴에 올[illegible]
수산물전문 「레스토랑」이 [illegible]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수산물 식사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4〕

어항계획에 필요한 조사항목

1-1 경제 및 사회조건조사의 구분과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사항목	조사결과의 이용범위
사회조건	배후지	배후인구	○총인구(연령, 성별, 소득, 직업) ○세대수 ○출산율, 사망률	장래의 어업취업자의 추정, 건설적지의 선정 장래의 소비동향의 추정
		배후산업	○사업별생산액	장래 어업의 동향 검토
		토지이용형태	○지형도, 지질도 토지의 산업별이용형태 ○미(未)이용지의 넓이 ○토지의 가격 ○지 적	어항건설적지의 선정
		철도	○수송용량, 능력 ○철도망의 현상과 장래 계획 ○수송비용	수송방법의 검토, 건설적지의 선정
		도로	○수송용량, 능력 ○도로망의 현상과 장래 계획 ○수송비용	
		관련산업	○관련산업과 그 장래성 ○산출고 ○취업인구	장래의 어업동향, 건설적지의 선정, 어항의 규모검토
		전기·물의 공급	○공급시설 ○공급가능량 ○장래계획 ○공급비용	건설적지의 선정
		문화재 등	○문화재 ○사 적 ○천연기념물	건설적지의 선정
	사회계획	지역계획	○계획책정자 ○계획기간 ○1차산업, 수산업의 지위	상위계획과의 조정검토 수산업정책과의 조정검토

병·어

脂質含量많고, 겨울에제맛 大阪등지에선 名産物로

병어는 전장 60㎝, 몸체는 마름모꼴이고 좌우 편평하다.

또 입은 작고 비늘도 작아 체표에서 떨어지기 쉽다.

체색은 회청백색(灰靑白色)으로 외양성(外洋性)의 고기인데, 산란기(6~7월)에는 내만에 온다.

병어는 맛이 좋은데, 특히 일본의 관서지방에서는 최고급어종으로 친다.

우리나라, 일본의 남부, 동인도양에 분포한다.

병어는 연한 백색육 어류로, 겨울철에서 봄철에 많이 잡히고, 겨울철이 가장 맛이 좋은 시기에 해당한다.

백색육 어류 중에서는 비교적 수분과 지질함량이 많으며, 단백질이 적은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수분을 감소시키는 된장졸임으로 조리하면 맛이 좋아 일본의 오사카(大阪)등지에서는 명산물로 되어있다.

비타민류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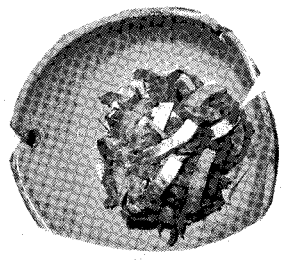
인도의 남부지방과 중국에서는 병어가 우리나라에서의 돔처럼 높이 평가된다.

따라서 선어 외에 냉동, 염장도 하고 스페인에서는 통조림으로 만들기도 한다.

병어는 맛이 담백하고, 선도가 좋은 것은 생선회로도 즐긴다.

일반적으로는 속금구이, 된장구이, 튀김 등으로 이용된다.

또 병어의 중골(中骨)은 말렸다가 기름에 튀기면 맛있는 술안주가 된다.



〈병어회〉

■재 료

병어 ……400g
무 ……1토막
깻잎 ……10장
레몬 ……1/2개
상추 ……5잎
마늘다진것 ……1큰술
식초 ……2큰술
〈초고추장〉
고추장 ……3큰술
설탕 ……1큰술

■만드는 법

①병어는 싱싱한 것을 골라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가운데 뼈를 중심으로 석장뜨기 하여 뼈를 발라 낸 다음 4㎜두께로 길게 채썰어 놓는다.

무우는 곱게 채쳐서 찬물에 담가 놨다가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 놓고 깻잎은 깨끗이 씻어서 채썰어 놓는다.

③레몬은 반달모양으로 썬다.

④접시에 상추잎을 깔고 채썬 무를 먼저 놓은 다음 병어회를 한옆에 가지런히 담는다.

레몬 2쪽과 깻잎을 곁들여 싱싱한 병어회를 상에 낸다.

⑤분량의 재료표 초고추장을 만들어 곁들여 함께 낸다.

※병어회는 다른 회에 비해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값도 저렴하고 작은 것은 뼈째 먹을 수도 있다.

♣生·活·經·濟

"땅, 집 투기하면 안된다"

자손들이 '삶의터전'으로 가꿔야 할 유산

운동장에서 어떤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어떤 사람이 더 잘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일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경기내용을 차분히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무리한 욕심은 많은 사람들을 자극해서 혼란을 빚게 하고 모두에게 불이익을 안겨준다.

집이나 땅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집은 본래 생활을 담는 그릇인 것이고 땅도 삶을 위한 터전으로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가꾸는 노력을 끝없이 기울인다.

그런데 이러한 집과 땅이 70년대에 들어오면서 투기상품으로 급격히 변해 버렸다.

전국의 무주택가구가 60%이므로 집을 마련하려는 욕망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요즘 집이나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아닌 데에 있다.

집이 버젓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집을 사려고 몰리는 것이다.

경기장의 예와 마찬가지로 너도 나도 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해 몰리니까 채권입찰가격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비싼 값으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을 받고 집을 팔려고 한다.

때문에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정작 집이 없는 사람은 집마련의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땅값 오르면 국민이 내야할 세금도 올라

땅도 마찬가지다. 너도 나도 땅을 사둬야 돈을 번다는 생각대문에 투기가 성행해서 땅값이 뛴다.

땅값이 뛰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개발사업에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 정부사업이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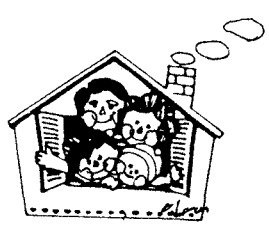
이러한 정부사업이 땅값 상승으로 차질이 생기면 고용효과도 줄어들 뿐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즉 집이나 땅을 투기대상으로 보고 마구 사들였다가 파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집을 사고 팔아서 프레미엄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그가 얻은 프레미엄의 실질가치도 별게 아닌 것이 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땅은 어느 개인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이 땅은 우리 자손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꿔야 할 유산이며 우리 자신도 이를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소득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이러한 투기가 계속되면

집에 대한 개념도 바꿔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했지만 앞으로 거주의 개념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선진외국에서 부동산투기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곳 국민들이 오랜동안 '집은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주거지를 옮기고 집도 임대하는게 보통이다. 우리나라처럼 집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직장도 먼 곳에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일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에 맞춰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지 집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주변에서 집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또 집 근처의 근무처로 옮기기 위해 인사청탁을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집은 소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때문에 비롯되는 그릇된 현상이다.

외국의 경우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독신자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게 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구태여 아파트 등의 투기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거주하는 곳이란 의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될 때 집값이 안정되고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마련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이다.

♣生·活·經·濟